

1. 기관장 모임: 오늘 친교 후 1시
2. 선교회 모임: 4/2(주일) 친교 후 1시
3. 고난주일 특별새벽예배: 4/4(화)-4/8(토) 오전 6시
4. 성금요일예배: 4/7(금) 저녁 7시 50분
5.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4/9(주일) 오전 6시 임마누엘장로교회
Immanuel Presbyterian Church
28701 N Ivanhoe Ln, Mundelein, IL 60060
6. 부활절 연합예배 및 성찬식: 4/9(주일) 오전 11시
(부활절에는 주일 1부 예배가 없습니다.)
7.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피해 돕기 성금 (\$1,060) 유니세프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예배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설교 계획

Intro: 그리스도 예수의 종 (빌 1:1-2) 3/26

1.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 1:3-11) 4/2
- 부활주일 4/9
2. 그리스도를 전파함 (빌 1:12-18) 4/16
3. 살든지 죽든지 (빌 1:19-26) 4/23
4. 한 마음, 한 뜻 (빌 1:27-2:4) 4/30
5.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 2:5-11) 5/7
6. 빛들로 나타나라 (빌 2:12-18) 5/14
7.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자 (빌 2:19-30) 5/21
8. 가장 고상한 지식 (빌 3:1-11) 5/28
9. 꺾대를 향하여 (빌 3:12-21) 6/4
10. 같은 마음, 평강의 삶 (빌 4:1-9) 6/11
11. 자족하는 삶 (빌 4:10-23) 6/18

지난주 (3월 19일) 헌금 통계 (\$2,122.00)

예배시간 안내

주일 EM 예배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 KM 예배 주일 오전 11시 (본당)
 새벽 예배 화~토 오전 6시 (본당)
 Youth 예배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예배실)
 어린이 예배 주일 오전 11시 (어린이부 예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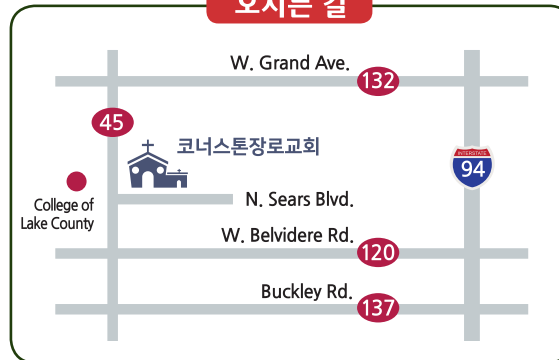
코너스톤 양육과정

새가족반 (4주 or 7주)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실존적 필요를 위한 과정	수시개강
정착반 (5주 or 10주)	신앙생활의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우길 원하는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	수시개강
기초반 (12주)	하나님나라 복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삶의 토대를 배우고 익히는 일대일양육교육	수시개강
제자반 (20주)	하나님나라를 살아내고 다른 한 사람에게 하나님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일을 위한 일대일제자훈련	상, 하반기 1차례 (1월, 8월 개강)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영목** 교육강도사 **Sagar Mekwan** 교육전도사 **김지선**
 사무장로 **이현진, 김소림** 휴무장로 **전진홍**

오시는 길



33428 N. Sears Blvd. Grayslake, IL 60030
 T. 224-541-4359 | www.cpcgl.org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

코너스톤장로교회

미국장로교 PCA

말씀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삼아
 하나님나라 세위가는 성령의 공동체

1부 예배 (EM)

I 2부 예배 (KM)

Invocation 예배부름 요한복음 4장 24절

Worship 경배찬양

● Praise “Blessed the Lord” ● 영 광 송 “송축해 내 영혼”

●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Prayer 대표기도 김소림 장로

Announcements 교회소식

Bible Reading 성경봉독

Philippians 1:1-2 빌립보서 1장 1-2절

Offering Prayer 봉헌기도

Message
“Servants of Christ Jesus” **말씀강해**
“그리스도 예수의 종”

● Praise ● 결 단 송
 “In Christ Alone”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 Benediction ● 축 도

● 표에서는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Stand)

THE POINT: Living as a voluntary servant of Christ brings joy.

1) The word "servant" that Paul used here actually means "slave." In the Roman Empire, there were an enormous number of slaves. Some slaves were beaten, whipped, and even killed by their masters. It was common for slaves to be abused, exploited, and even tortured. If slaves had a dream, it was to become free.

2) However, surprisingly, some slaves voluntarily remained as their masters' slaves. Why? Because they had a good master who treated them like family. Although their status was that of a slave, they were treated like one of their master's children. Sometimes, masters adopted their slaves as their own children, and occasionally, some good masters left their inheritance and all their property to their adopted slaves. So, not all slaves were miserable. There were slaves who lived happily and peacefully throughout their lives, thanks to having met a good master.

3) When Paul introduced himself as "a servant of Christ Jesus," it meant that he voluntarily became a slave to Christ Jesus. Why? Jesus, his Lord, died on the cross for his slaves and liberated them from their sin forever. Jesus, the good master, gave them true freedom and wanted to give them the kingdom of God as an inheritance. Paul's introduction here means that he lived his life as a voluntary slave of the good Master, Christ Jesus.

4) Paul wanted to live his life as a voluntary slave of Christ Jesus, who was the best Master of all. He had no doubt that this would bring him the greatest happiness in his life. So, Paul lived his whole life as a voluntary slave of Christ Jesus. Serving Jesus was the greatest joy for him.

5) Are we living as the servants of Christ Jesus, or are we struggling to live as free people, away from Jesus?

6) The Bible tells us that all attempts by humans to live as their own masters will ultimately lead to the curse of pain and death, which is sin. In contrast, to make God the Lord of our lives and to live only for Him is the only way to eternal life and heaven. Be a voluntary servant of Jesus Christ for the rest of your life. That is the most blessed path.

포인트: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1) 바울이 사용한 ‘종’이란 단어는 사실 ‘노예’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주인에게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주인에게 학대 받고 착취를 당하고, 혹사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노예들에게 꿈이 있다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러나 노예 중에는 자발적으로 주인의 노예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아버지 같고, 가족처럼 자신을 대해주는 좋은 주인을 만난 경우입니다. 비록 신분은 노예이지만, 주인의 가족 중 한 사람처럼 때로는 자녀 중 한 사람처럼 대우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간혹 주인이 노예를 자녀로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인이 죽으면 그의 모든 유산을 노예에게 물려 주는 일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자발적으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들도 드물게 있었습니다.

3)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주인이신 예수님은 종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죄에서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신 참 좋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좋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자발적인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바울은 소개했습니다.

4) 바울은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참 좋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그는 의심치 않았습니 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자발적인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5)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6) 성경은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하는 모든 시도가 결국에는 고통과 사망의 저주의 원인인 죄라고 이야기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